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0년 12월 15일

제 40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편집인 : 김규홍 김창욱 유지현 윤지영 이현우 채영신
- 주 소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 2020년이 떠나갑니다 /

‘나뭇잎 떨어져 주워보니 세월이더라’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 회장

경자庚子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느 해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COVID19라는 역병疫病으로 상궤常軌가 흐트러지면서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제동이 걸리고,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日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反面, 평범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온 지구촌地球村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人間이 바벨탑을 너무 높이 쌓은 것에 대한 업보業報인 듯 싶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도 올 한 해, 모임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 같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회원 여러분과 선배님들께 송년의 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른바 「수도권 특별 방역 기간」이 지속되면서 계획했던 문화文化와 역사歷史 탐방探訪도 무산되어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으면서 오랜 나날 믿고 당기고 엇갈리며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사람도, 아프고 뒤틀리고 절망이었던 시간이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면 웅이 진 상처조차도 눈물과 감동의 「작품作品」으로 승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도 선후배가 사랑과 존경으로 엮어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傳統을 이어왔듯이 새해에도 새 소망所望을 품고 새 집행부와 함께 멋진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

신축辛丑년 새해 큰 복 누리소서!

연단鍊鍛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太陽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점 고문, 회고록 『인생자산』 발간

임화숙 성연미 회원, 많은 이와 나누고자 도서 구입 회사



구순九旬을 넘긴 황우점 고문이 7번째 저서인 『인생자산 人生資産』(마루C&P, 비매품)을 발간했다.

『1부 은인恩人과 귀인貴人, 2부 어제와 오늘의 아나운서, 3부 애국자愛國者와 위인偉人』으로 구성된 168쪽 분량의 책은 저자가 평생 메모 습관을 통해 다져온 놀라운 기억력의 산물이다. 김규홍 부회장이 편집한 회고록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보태주었다. 나는 사회의 한조각 인생이니 옆의 우리들이 나를 일으켰다. 오늘까지 고맙게 삶을 누리게 한 모든 우리들’에게 바치는 헌사獻詞이기도 하다.

특히 2부 ‘어제와 오늘의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던 평생 아나운서 꼬리표가 붙었던 저자가 방송 선배를 기리고 후배들을 조명함으로써 ‘아나운서는 영원하다’는 전통을 되새겨주고자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다.

한편 책 발간 소식을 듣고, 황우점 고문과 동향同鄉인 인천 출신 임화숙 회원이 “비매품인 황 고문님의 책을 더 많은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선물하고 싶다”라며 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에 아나운서클럽은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구입해 연회비와 후원금 납부자에게 우송했다. 또한 봄은아나운서 아카데미 대표 성연미 회원도 개인적으로 책 30권을 구입해 아나운서 지망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해 제6회 황금메아리상 시상

12월 2일 정오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에서 송년 임시 회의 개최



“아나운서클럽은 든든한 베이스캠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준 황인우 박민정 채영신 이후재 백승주 차인태 황우점 김정근

아나운서클럽이 단출하게 송년 모임을 열었다.

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 회장은 12월 2일 정오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10명 이내로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 총회 자료 인준과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등을 거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정기 총회, 6월 정례 모임 겸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9월 이화장 역사문화탐방 등의 행사가 무산됨에 따라 약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채영신 사무총장이 진행한 이날 모임에는 황우점 고문, 김상준 부회장, 이후재·박민정 감사, 황인우 편집장, 2020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 백승주, MBC 김정근 아나운서를 비롯해 사진과 동영상에 담당 KBS사우회 이태수 회원이 참석했다.

차인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나운서클럽 사상 최초로 회원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한 해를 보낸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클럽 회장으로서 주최하는 마지막 모임인지라 올해가 가기 전, 선배들의 마음이 담긴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등 모든 요소를 담아보았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차인태 회장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아나운서클럽 활동 동영상을 공개한 자리에서 백승주 아나운서는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보니, ‘아나운서클럽은 베이스캠프’란 생각이 든다. 떠돌이가 아니라, 도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있어 든든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20 정기 총회 자료 검토 후 감사 보고가 있었다. 이후재 감사는 “채영신 사무총장이 혁신과 검약 방침으로 자산을 늘리면서도 전통 계승은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끝으로 거행된 제6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백승주, 김정근 아나운서에게는 상패와 함께 차 회장이 제공한 상금과 황 고문이 제공한 부상이 전달되었다.

2면에 계속

2020 아나운서대상 시상식, 약식으로 치른다

12월 18일 MBC 골든마우스홀, 인터넷 중계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이 비대면 중계로 진행된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차미연, 사진)는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을 12월 18일 오후 MBC 상암골든마우스홀에서 수상자와 협회장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약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선망羨望의 아나운서대상 트로피’를 만든 조각가로, 11월 17일 향년 85세로 별세한 고故 최만린 고문에게 특별상이 추서되고, 11월 21까지 K리그 중계를 한 최고령(78세) 축구 캐스터 송재익 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된다.

이계진 부회장이 ‘방송인의 사표師表’ 장기범 아나운서를 기리며 제정해 모범적 활동을 해 온 대내외 단체 및 개인에게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는 장기범상은 KBS <우리말 겨루기>의 안방마님 엄지인 아나운서와 배려와 포용의 언어를 강조하며 ‘대對國民 언어소통능력 향상 프로젝트’를 펼치는 고려대학교 국문과 신지영 교수가 받는다.

2, 3면에 계속

수상자 특집

제6회 황금메아리상

6월 예정 시상식이 순연되어 송년 임시 회의 열고 시상

KBS <FM풍류마을> 백승주 "선배님들,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실화탐사대> 김정근 "사람들에게 좋은 울림 주고 있다고 인정받아 기쁩니다"



12월 2일 열린 제6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 수상자 백승주 아나운서는 "18년차 아나운서지만 그동안 프로그램상을 별로 받은 적이 없다. '잘한다. 오래 그 자리에 있어 달라' 격려하는 상으로는 처음 받는 상이다. '복돋아주면 더 떨 수 있다'고 생각한다. <FM풍류마을>을 진행하며 국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참으로 귀한 상이다. 시상식이 몇 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서너번 상을 받는 것

같다. 특히 '황금메아리'란 상 이름이 좋다. 잠깐 나갔다 돌아왔지만, 16년차 방송인으로서 '내 목소리가 방송가에서 필요한가?' 고민하던 차, '사람들에게 좋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시상식 참석자들은 두 수상자에게 "아나운서로서 긍지, 자부심, 소명 의식을 튼튼히 하라, 공인임을 잊지 말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키워라, 기능보다 인성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는 덕담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2020 한국아나운서대상

대 상

OBS 유진영

OBS 개국 14년 만에 첫 아나운서대상 수상자라 영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만을 꿈꾸었기에 직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유진영 아나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탄생한 OBS의 시작부터 변함없이 OBS 아나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많은 후배들이 퇴사와 전직轉職으로 팀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OBS 아나운서라는 자부심으로 그 타이틀을 놓지 않았다.

현재 우리말 프로그램 <정말로> 기획·제작을 비롯해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아침>과 정오뉴스 <경인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연예 매거진, 인천 고교생토론회와 바다동요

대회, 특집 음악회, 특집 다큐 내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OBS 개국 14년 만에 첫 아나운서대상 수상자라니,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인생에 큰 의미와 전환점이 됨은 물론, 한때는 14명에서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OBS 아나운서팀 7명 모두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뛰어난 방송 진행 능력에 더해 겸손하고 배려 깊은 품성으로 아나운서 선후배뿐 아니라 제작진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시청자의 호응도 못지 않게 크다.

아나운서라는 자리의 의미를 잘 알고 소명의식도 강한 만큼 그에 따른 노력도 꾸준한 유진영 아나운서에게 2020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해가 되리라.

아나운서클럽상

MBC 박창현

더 힘차게 걸어가 그윽한 향이 전해지는 방송 하고 싶어요



"이곳에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본보기가 되는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나운서클럽상은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쌓아 올리고 닦아 놓은 아나운서의 길을 이어서 걸어갈 후배들을 응원하고 복돋아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아 본 적 없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를 지닌 채 방송을 해 오고 있으니, 저는 아직은 한창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요?"

더욱 힘내서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연세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박창현 아나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지내던 2010년, 군 생활 중 들려온 마음의 소리를 통해 아나운서를 떠올린 후 아나운서라는 한 길을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왔다고 했다.

준비생 시절에는 2017년 안타깝게 돌아가신 KBS 박태남 아나운서처럼 뉴스를 정말 잘하고 싶었고, 2013년 입사해서는 오상진 선배같이 친근한 아나운서, 손정은 선배처럼 열정적인 아나운서, 오승훈 선배처럼 의로운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2013년 봄 입사해 <MBC5시뉴스> <경제매거진M> 등에 이어 TV <12MBC뉴스>와 뉴스 특보를 맡고 있으며, 우리말 프로그램 제작과 참여에 열정을 쏟고 있다.

박창현 아나운서에게 포부를 묻자, "장수 프로그램이 사라져 가는 시기에 제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든 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나 스며드는 방송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윽한 향이나 느낌이 전해지는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CBS 이지민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나운서 대선배님들이 주시는 클럽상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상을 주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민 아나운서는 당차게 고3 때 혼자 캐나다로 유학 가 토론토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대학교 4학년 때 300명 가까운 한국 지망생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를 맡는 등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좋아했기에 '아나운서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 입사해 10년차 아나운서가 되고 보니, 아나운서란 꿈을 이루고 나서는 그 꿈에 젖어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했다고 한다. 이제 아나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꼭 잘 해내고 싶은 직업'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수석 아나운서' 직함으로 얼마 전 정년퇴임한 박명규 아나운서처럼 뉴스와 아나운서의 정석을 지키며 아나운서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지민 아나운서는 올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색다른 도전을 했다. CBS 편성국에서 추진하는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공모'에 지원한 것이다. 그 결과 편성국 PD, 아나운서 가운데 최초로 유튜브 채널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를 4월에 개설해 단독 제작·진행하는데, 육아의 고민을 재미있게 풀어내 인기가.

섭외, 편집까지 일은 많지만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이지민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음악FM <이지민의 All that Jazz>와 표준FM <저녁종합뉴스>에서도 들을 수 있다.

특별상

고 최만린(전 KBS) 예술 작품 같은 아나운서대상 트로피 제작



'한국 대표 조각가' 로 아나운서대상 트로피를 제작했다.

원래 1992년 당시 한국아나운서동우회(회장 황우겸)가 제정, 아나운서대회에서 수여한 '선배들이주는상(우측 사진 상단, 이현우 소장)'은 상패에 별도로 금배지를 부착한 것이었다.

그러다 1997년, 동우회가 클럽으로 확대·재편하면서 황우겸 고문이 '아나운서클럽상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하자'고 의뢰해 고인이 상의 취지를 담아 자비自費로 제작했다.

전파의 주인공으로서 방송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를 상징하는 뾰족한 알 같은 형태(트로피 사진 오른쪽)로 제작, 남녀 2인의 수상자에게 수여한 것이 시작이다.

그 후 후배들이 '다른 상에도 상패를 만들어주십사'고 고인에게 부탁해 '아나운서를 떠받드는 모양'으로 제2의 트로피를 추가 제작, 2003년부터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아나운서 대상의 품격을 높였다.



공로상

송재익(전 MBC) 최근까지 중계한 최고령 캐스터



1970년 MBC 입사, 1998년 정년퇴임 후 2000년에 SBS로 옮겨, 1986년 멕시코부터 2006년 독일까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중계 기록을 세웠다.

그 후 '애드리브의 전설'을 잊지 못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요청으로 2019년 K리그 캐스터로 복귀해, K리그2 28경기에 이어 11월 21일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를 끝으로 K리그1, 2에서 26 경기를 중계하고 마이크를 놓았다.

장기범상

KBS 엄지인 10년째 <우리말 겨루기> 진행



2010년부터 유일한 한글 퀴즈쇼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는 우리말 전문 최장수 MC이다. 여성 단독 진행이 쉽지 않은 퀴즈쇼에서 우리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외부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려대 신지영 교수 대중의 언어 감수성 제고



『한국어 문법 여행』(2015), 『언어의 줄다리기』(2018) 등을 발간해 배려와 포용의 언어를 강조하며 대중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중학생 말하기 대회', 2019년부터 서울시민의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다다다-말하다 듣다 즐기다' 발표대회를 이끌었고, 올 6월부터 MBC <탐나는 TV> '우리말 새고침'에 출연 중이다.

앵커상

SBS 박상도 <SBS 12시 뉴스>



묵직한 신뢰감과 자연스러운 화법, 뛰어난 전달력이 강점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다가가는 뉴스는 깊이 있게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하기에, 신입사원 뉴스 교육에서 기본기를 강조한다.

MBC 이재은 <MBC 뉴스데스크>



2012년 입사 후 전 분야에서 뛰어난 진행 능력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 중이다. 젊고 생동감 있는 뉴스를 지향, 시청률을 5배 이상 상승시키며 시청자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

스포츠캐스터상

SBS 최기환 <2020 사대륙선수권> 골프 중계



3년 전 골프 캐스터에 도전했다. 중계 공부와 국내외 자료 조사, 매회 달라지는 코스를 연구하며 2019년 롯데렌터카 챔피언십 U+ 중계에 데뷔했고, 올해는 사대륙 선수권대회를 안정적으로 중계했다.

라디오 진행상

TBS 황원찬 <TBS 아침 종합 뉴스>



2002년 입사 후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TBS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온 아나운서이다. 라디오 뉴스 청취율 1위 <TBS 아침 종합 뉴스>와 일요일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를 제작·진행하고 있다.

MBC 류수민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



2019년 9월 <아침&뉴스>를 맡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첫 번째 MBC 여성 아나운서가 되었다. 올 3, 4분기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를 달성하고 2위와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교양

MBC 허일후 <싱글빙글쇼 허일후 배기성입니다>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에 올해 발탁되어 안정적으로 재치있게 이끌고 있다. 또한 유튜브 <정치인싸>를 진행하며 뜨거운 반응으로 표준FM에도 편성되는 등 콘텐츠 진행자의 역량도 인정받고 있다.

FEBC부산 차유미 <라디오 친구로 스며들다> 제작·진행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알리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해 <라디오, 친구로 스며들다> <위로 30> 등을 제작·진행했다.

음악

KBS 이상호 <이상호의 드림팝>



2018년 5월부터 <드림팝>을 맡고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녹음한 팝송을 카세트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던 것이 기반이 되었다. '동굴 같은 목소리'로 친근하게 대화하며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SBS 이현경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제작·진행



8년째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현디'로 이른 새벽 청취자 곁을 지키고 있다.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존경받는 선배로서, 13년간 라디오 캠페인 <우리말 지킴이>를 제작하며 바른 표현을 알려주고 있다.

TV 진행상

KBS 오언중 <더 라이브>



지난 3월부터 <더 라이브>를 진행하며 충선을 비롯해 굵직한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더 라이브>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을 바라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창원 이아름 <감시자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감시자들> MC를 맡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미 1년간 라디오 <이아름의 시사 경남>을 진행하며 여성 시사 전문 진행자로 입지를 굳혔다.

교양

TBS 김진현 <민생연구소 시즌 2>



7월부터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 <민생연구소 시즌 2> 진행을 맡아 발로 뛰며 역량을 키우고 있다. 매주 '신림동 원룸 살이', '배달 종사자 체험' 등 민생 현장과 스튜디오를 넘나들며 서민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한다.

MBC 임현주 <생방송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하며, 권위에 대한 도전과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김영사>와 함께 <몸과 마음의 양식당> 진행, <한겨레> 칼럼니스트, 저서 <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 출간 등 다채롭게 활동 중이다.

예능

KBS광주 김한별 <음악의 숲>



코로나 19상황에서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초대해, 노래와 웃음을 전하는 <음악의 숲>을 진행한다. 예능 불모지 지역에서 '유일한 예능 MC'로 불리며 이제는 웹 예능의 기획·제작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BS 김보민 <언더퀴즈>



아나운서들이 만드는 KBS 공식 유튜브 방송 <언더퀴즈>의 제작·진행자로서 예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또한 KBS 2TV <무한리필 샐러드>에서 예능감을 더한 정보 전달력으로 프로그램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 넣었다.



회 | 원 | 동 | 정

올 1월 임택근 고문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작고하신

김봉구, 문복순, 배덕환, 길종휘, 최만린, 유덕훈, 이영호 회원님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 문화예술계 큰 별, 마음의 길을 가다



고姑 최만린(전 KBS)

최만린 선생님, 이렇듯 애석하고 절망적인 이별을, 선생님께서 어느날 어느 시간에 초겨울의 황막한 대지 위에 검은 깃발로 꽂으셨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머리를 깊이 숙이고 애도의 꼭 찬 비통에 잠겨 있는 조문객 몇몇 사람은 모두 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온 그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며 존경스런 예술가이고 탁월한 스승, 더하여 천지간에 겸손하고 바르게,

따뜻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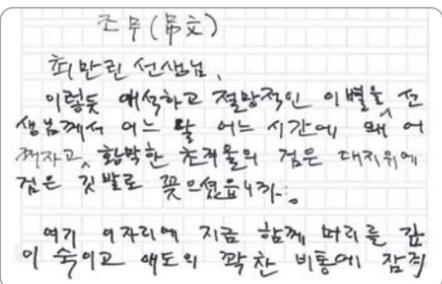
삶에 대한 바른 예절들을 다 이루어 갇으시곤, 어느 하루 이상한 일진이 찾아와서 마음 안에 감추어 깊이 두었던 외로움과 피로함과 갑자기 더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 참겠는 심신의 과로와 고통으로 잠시만 눈감고 쉬하던 그 안식이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귀중한 모든 작품은 '최만린미술관'에 영구히 보존될 것이며 세상은 남은 세월 안에서 더욱 밝고 지혜롭게 성숙하며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훈육하여 길러줄 것입니다.

최만린 선생님, 외로워 마시고 편히 가십시오. 말씀하고 싶은 말 생전처럼 말해주시고, 인류를 위해, 더욱더 우리나라를 위해 하늘에 고해주시길 기도를 부디 항상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시간의 차이가 얼마간 다를 뿐 선생님과 저희 모두는 동일한 길을 갑니다. 부디 외로워 마시고 먼저 복된 처소에 가시어 풍성한 평화 안에 머무십시오.

2020, 11, 19. 김남조 삼가



김남조 시인이 비보 悲報를 듣고 급히 써와 빈소에서 낭독한 조문文이다.

1927년생인 김남조 시인은 부군 고 김세중 교수의 수제자인 고인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 최만린
- 1935년 서울 생
 - 1958년~1960년 KBS 아나운서
 - 1967년~200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미술대학 학장
 - 1997년~1999년 국립현대미술관장
 - 2005년~2007년 한국아나운서클럽 제6대 회장
 - 2006년~2008년 예술마을 헤이리이사장
 - 2020년 11월 17일 별세

고姑 유덕훈(전 KBS) 1929년 서울 생, 11월 중순 미국 LA에서 별세



11월 중순 미국 LA에서 지병으로 소천한 고인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 KBS에서 근무했다. 1950년 4월 12일 숙직 근무 중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윤, 최윤철 등 우리 한국 선수가 1, 2, 3위를 휩쓸었다'는 뉴스를 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6.25가 발발하며, 방송과장 민재호 아나운서 후임자로 1951년 9월부터 1972년까지 '미국의 소리' 우리말 방송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퇴직 후에도 한국인 교회 장로로서 성경을 직접 낭독한 테이프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 봉사에도 힘썼다.

고姑 이영호(전 TBC) 1949년 서울 생, 11월 21일 미국 LA에서 별세



11월 21일 낮 LA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상(전 KBS) 회원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1967년 TBC 주최 DJ 컨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채된 후, FM방송과 라디오 제작2부 PD와 DJ로 활동했다. 언론통폐합으로 KBS에서 근무하다 1985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 가 28년간 교포 사회에서 명아나운서로 이름을 날렸다.

그 후 다시 LA로 이주해, 라디오코리아에서 4년간 라디오코리아 방송위원으로 <팝스타이얼 1540> MC와 <주말 모닝뉴스> 앵커로 활약했다. 입관식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라디오코리아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를 넣었을 정도로 평생 마이크와 함께한 삶이었다.

여린 풀잎처럼 사신 동초童草 선배님 영전에



고姑 길종휘(전 KBS)

선배님! 천국의 퇴근길 풍경은 어떠한가요? 혹시 여의도 퇴근길 풍경과 비슷한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선배님은 그곳 천국의 해 질 녘 퇴근길에 술 골목을 거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니가요.

선배님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그날, 아나운서 단체 고姑 길종휘(전 KBS) 카톡방에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말씀들이 넘쳐났고 읽는 이들의 눈물이 마구 흘러 내렸답니다.

길종휘 선배님! 선배님은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부르는 이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분이셨습니다. 이규항 실장이 지어주신 '동초童草'라는 선배님의 아호처럼, 선배님은 태어나던 그때의 그 마음을 온전히 간직한 채 평생을 여린 풀잎처럼 사시다가 떠나셨습니다.

돌아보면 아수라들의 세상을 살면서도 유머가 넘치셨으나, 그 세월의 유머 속에는 삶의 슬픔이 묻어 있었고, 퇴근길의 술 한 잔에 행복해 하셨으나, 한잔 술에 취하시면 '올어라 기타줄아'의 딱 한 소절 '웬일인지 나를 나를 기쁘게 하드란다!'만을 반복해 부르시며, 눈가에 애잔한 빛을 보이셨습니다.

한국방송 100년사에 빛날 프로그램은 기억되지 않더라도 멋을 부린 끝말 길게 빼기 5분 '니우스'에 최선을 다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아나운서'였음을 생애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선배님, 기억합니다! 한참 뒤늦게, 정말 어찌어찌 '늙은 부장'으로 승진이 되신 날, 원종배 아나운서에게 그러셨다면서요. "애 종배야, 내가 부장이란다! 나한테 부장님이라고 한 번 불러봐라!" 제게 그 이야기는 정말 웬일인지 슬프게 들렸었지요. 그런 세월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배님의 인생은 곱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봉급을 타서는 늘 제일 먼저, 힘들게 사는 여동생네로 톡 떼어 보내시던 모습, 작은 인연만 있어도 애경사를 빼놓지 않으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정작 선배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타계의 소식도 늦어져 그놈의 코로나19 상황에 겨우 몇 분이 다녀가셨다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선배님! 꽃피는 봄이 오면 기필코 삼삼오오 모여서 마지막 기거하셨다는 마석의 가족들을 수소문해서, 술 한 병과 부조금 들고 찾아가려 합니다.

선배님은 빛나는 아나운서 역사에 작지만 아름다운 전설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선배님! 부디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2020, 11, 9. 이계진 합장

- 길종휘
- 1961년 KBS 아나운서
 - 1964년 TBC의 전신 라디오서울로 이직
 - 1993년 KBS에서 방송부장을 지내고 정년퇴임
 - 2020년 11월 8일 별세

김규홍 부회장 등 최만린미술관 찾아 생전의 고인과 환담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규홍 배우선 최만린 이인숙 김규은 아래 황인우



김규은, 김규홍, 배우선, 이인숙, 황인우 회원 등 KBS사우회 회원 8명이 11월 12일 낮 최만린미술관을 방문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근처 13평 빌라로 이주한 최만린 고문을 만났다.

최만린 고문은 2017년 4월 헤이리 작업실 탐방 행사 때처럼 낡은 점퍼에 페인트가 묻은 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안타깝게도 미술관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현대 조각의 역사와 작품 창작 과정, 방송국 생활, 아나운서클럽 이야기 등을 나누며 환담한 그날이 고인의 마지막 공식 활동일이 되었다.

'생명을 얻어 살았던 시간은 내 손으로 깨끗이 치우며 살아가고 싶다' 던 바람대로 최만린 고문이 30년간 거주했던 자택은 미술관으로 변모했다. 성북구립 미술관 분관인 최만린미술관(서울시 성북구 솔샘로7길 23, 02-6952-5016)은 2020 공공건축 우수상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올 여름 잠시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10월 12일 재개관했다.

작가가 기증한 '이브58-1' 등 126점의 조각 작품을 전시한 실내외 전시장과 수장고, 130여 점의 스크랩북을 소장한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23일까지 개관 기념 기획전 '흙의 숨결' 전시를 진행한다. 12월 14일 오후 3시에는 고 최만린 추모 음악회 '화음畫音'이 관중 없이 열려 유튜브로 중계되었다.



이규향(전 KBS)

문예지 『운율마실』 가을호에 불교 수필 게재



400여 문학 동호인들이 1년에 두 차례 펴내는 『운율마실』에 불교 관련 글을 발표했다. <붓다의 중도와 공자의 중용은 인류 궁극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의 불교 수필이다. 저자가 '큰스님들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내용'이라는 농담으로 자평할 정도로 고행하듯 글을 썼다고 한다.

박선영(전 MBC)

북한인권상 수상, 물망초합창단 공연 개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 회장 김태훈)으로부터 제3회 북한인권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한변 창립 7주년을 맞아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박선영 회원은 2012년에 설립한 (사)물망초 이사장으로서 탈북자 지원과 탈북 청소년 학교 운영, 국군포로 송환과 전시 납북자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을 인정받았다. 한편 11월 23일 저녁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는 탈북여성합창단 물망초합창단이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명명오페라단과 함께 5주년 기념 공연을 펼쳤다.

김동건(전 KBS)

20년 넘게 장학금 기부, '아름다운예술인상' 굿피플예술인상 수상



11월 6일 오후 5시 (재)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이 주최하는 제10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서 배우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씨와 함께 선행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굿피플예술인 부문 상을 받았다. 글로벌 패션스쿨 분교로 1989년 설립된 '에스모드 서울'에 20여 년간 장학금을 기부하며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이다.

지영서(전 KBS)

한라대에서 동영상 온라인 수업 호평받아



한라대학교 1학기 온라인 수업 우수 콘텐츠 공모전에서 동영상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의 방식을 적용하며 한 해 강의를 잘 마무리지었다. 지영서 회원은 2014년 정년 퇴임 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로 임용되어 미래라이프융합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다.

유지현(전 SBS)

세계 가톨릭 언론인 대회 대변인 겸 집행위원 맡아



"디지털 시대의 평화"라는 주제로 2022년 8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시그니스월드총회(SIGNIS World Congress 22) 조직위원회 대변인 겸 집행위원을 맡았다. 시그니스는 교황청이 인준한 세계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션 업무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유지현 편집위원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COVID-19 시대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란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형식으로 진행된 시그니스 아시아 총회에서 대회를 홍보하고 개최국 한국을 알렸다.

성연미(전 KBS)

「CEO&」 12월호 표지 장식, 특집 리뷰 실려



봄온아나운서아카데미 대표로서 교육 철학과 경영 이념을 소개하며 「CEO&」 12월호 표지를 장식했다.

성연미 회원은 사회에 공헌하는 아나운서 교육을 목표로 봄온아나운서아카데미를 설립해 20년간 오천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영숙(전 KBS)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군 홍보대사 활동



11월 2일 경상북도 군위군(군수 김영만) 홍보 대사로 위촉되어,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며 군위를 널리 알리게 된다. 한편 김 회원은 이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위촉식 후 군청 직원 대상으로 '소통과 성공을 부르는 대화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병찬(전 KBS)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로 재위촉돼



10월 27일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 홍보대사로 재위촉되었다.

2018년부터 광주시 홍보대사로서 시의 대표 행사를 진행한 김 회원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광주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시정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방 | 송 | 가 | 소 | 식

아나운서의 '우리말 지킴이' 활동 인정받아 외솔상 등 수상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외솔상 실천 부문



외솔 선생 가족과 함께 한 이형걸 오태훈

한글날을 즈음해 아나운서들이 '우리말지킴이'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실장 이형걸, 부장 윤인구)가 10월 19일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열린 제42회 외솔상 시상식에서 '실천 부문' 상을 받았다. 외솔상은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우리말과 글 연구 및 문화 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실천 부문'과 '문화 부문'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다. KBS한국어연구부는 매달 한국어포스터 발간, '어린이 말하기 왕 선발대회', '바른말 고운 글 그리기 대회' 등 개최와 지난 10년간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을 벌이며 바른 언어 보급에 앞장서왔다.

MBC 강재형 아나운서는 10월 9일 오전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574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포장을 수상했다.

1987년 입사한 강재형 아나운서는 1992년에 사내 배포용 <우리말나들이> 편집·발간을 시작으로 1997년 TV 프로그램 <우리말나들이>를 기획·연출했다. 2001년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위원, 2003 국어심의회 위원, 2010년 미디어언어연구소장을 지냈고, MBC 아나운서국 국장을 거쳐 MBC 우리말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한편 MBC 아나운서국에서 기획해 한글날 방송된, 외국어 오남용 실태와 함께 바른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다룬 한글 다큐멘터리 <말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12월 3일 오전에 열린 한국 어문상 시상식에서 KBS 이상협 교육팀장이 방송 부문 수상자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고, MBC 이진 아나운서가 말글사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

한글날 문화포장



MBC 강재형

한국 어문상-방송, 말글사랑 부문



KBS 이상협



MBC 이진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계서 맹활약



다사다난했던 2020년,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로야구 역시 개막은 늦춰졌지만 지난 11월 24일 한국시리즈 6차전까지 치러지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3차전은 김현태, 6차전은 이광용 아나운서가 중계했는데, 특히 6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인공이 나오면서 KBS는 5년 연속, 이광용 아나운서(사진 중앙)는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현장을 중계한 흥미로운 기록도 세웠다.

<불후의 명곡> 아나운서 특집 녹화, 새해 방송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아나운서 특집이 방송된다. 최승돈, 장웅, 윤지영, 김보민, 오승원, 강승화, 김선근, 박소현, 강성규, 김중현 등 아나운서들은 12월 7일 녹화 현장에서 각자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노래와 무대를 준비해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했다. 그동안 스페셜 판정단으로 활동했던 아나운서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무대는 2021년 새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현경, 두 번째 책

『모두가 잠든 새벽, 넌 무슨 생각하니?』 출간



이현경 아나운서가 두 번째 에세이 『모두가 잠든 새벽, 넌 무슨 생각하니?』를 펴냈다. 이 책은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SBS 러브FM(103.5 Mhz) <이현경의 뮤직토피아>를 9년째 진행하는 DJ 이현경이 청취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주시은, <주말 8 뉴스> 투입

주시은 아나운서가 11월 7일부터 <주말 8뉴스>에 투입되었다. 처음으로 메인 뉴스 앵커를 맡은 주시은 아나운서는 "라디오에서 보여주었던 소통의 힘을 뉴스로 확장해 말을 건네는 뉴스를 하고 싶다. 엄숙주의를 덜어내고 편안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완서 선생 타계 10주년 기념 낭독회 개최

2020년 아나운서국 낭독회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박완서를 읽는 밤'이 11월 20일 저녁에 열렸다. 고 박완서 선생 타계 10주년을 기념하는 낭독회로서 MBC 아나운서들이 선생의 단편소설과 산문을 낭독했다. 소규모 관객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으며 아나운서국 유튜브 채널 '뉴스안하니'를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다.

김나진,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 출간



김나진 아나운서가 11월 11일 에세이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를 출간했다. 그동안 플랫폼 '브런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글을 전해왔던 김나진 아나운서는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대와 여는 아침> 5,000회 방송 축하 행사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 방송 5000회를 맞았다. 출근시간대 유일한 팝 전문 음악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 1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2020년 9월 8일 5,000회째 방송을 애청자와 함께 축하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은 그동안 청취자가 투표로 결정한 베스트 팝송들로 4장의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고, 2008년부터 11년째 매년 겨울 청취자와 함께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을 개편 맞아 아나운서들도 새 프로그램 진행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아나운서들이 새롭게 진행자로 투입되었다. 이명희 아나운서가 아침 6시 시사 프로그램 <굿모닝 뉴스>, 김윤주 아나운서가 오전 11시 포크 음악 프로그램 <김윤주의 랄랄라>, 이강민 아나운서가 주말 6시 시사 토크쇼 <주말엔 CBS와>를 진행하고 있다.

TBS

문체부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 다양한 특집 방송

아나운서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2020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하반기 다양한 우리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TBS FM <좋은사람들 송정애입니다> 한글날 특집 <도전! 우리말 으뜸이>에는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예선에 약 1,800건이 넘는 문자가 도착하는 등 우리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저녁 17시 56분에 방송되는 TBS FM <우리말 고운말> 역시 국어문화원연합회,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낯선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쉬운 우리말 쓰기'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말 출산 예정인 손승희 아나운서가 11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우리말 고운말> 제작 김혜지 아나운서, 한글날 특집 출연



한글날 특집 TBS TV 넷 워크730 코너 '한글날에 만난 사람'에 FM <우리말 고운말> PD를 맡고 있는 김혜지 아나운서가 출연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1990년 개국 이래 TBS 아나운서들이 종사자를 위한 연수 교재,

교통용어집, 방송 언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1997년부터 <우리말 고운말>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에 앞장서온 과정을 소개했다.

cpbc

김슬애 복직, <스마트쉼 토크쇼> 진행



김슬애 아나운서가 11월 9일 육아휴직 후 복귀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를 다룬 <스마트쉼 토크쇼>를 진행했다. 1부 '디지털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라'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2부 '스마트쉼 -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에서는 해결방안을 소개하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정민, TV 프로그램 <청춘 어게인> 진행

11월 29일 대림 개편에 따라 이정민 아나운서가 TV <청춘 어게인> 진행을 맡았다. 코로나19로 본당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시니어들이 TV를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과 함께 제작하는 '방송으로 만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에 선임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신설된 JTBC와 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2월 JTBC콘텐츠허브에서 사명社名을 바꾼 JTBC스튜디오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콘텐츠를 더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JTBC 콘텐츠의 저작권과 유통·수익 관리, 소속 방송인 관리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JTBC의 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가 JTBC스튜디오와 함께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손석희 총괄사장이 JTBC와 JTBC스튜디오의 관계 조율 등 한층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OBS

김준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진행



김준우 아나운서가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되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방송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 토론을 진행했다.

도민들이 사회 정치적 문제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진정한 속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행사이다.

이번 정책 축제는 분야별로 15개 토론 의제를 선정해, 5개의 토론 부스에서 3회에 걸쳐 동시에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각 토론 부스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메인 무대에서도 15개 토론 의제에 대해 별도의 토론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 오후 종합 토론을 통해 정책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했다.

<2020 바다동요대회> <누구나 재미있는 중창제> 방송

'2020 바다동요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김준호, 유진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10월 24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여의도 이랜드 크루즈 선상에서 열려 11월 7일 방송되었다.

또한 <특집 2020 누구나 재미있는 중창제>가 최지혜 아나운서 진행으로 10월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11월 18일 방송되었다.

febc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개최



극동방송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 100명을 위해 11월 1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모스틀리필 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박상현)와 가수 알리, CCM 가수 최지영, 성악가 정호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퍼포먼스팀 솔트엔라이트 등이 함께한 가을음악회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비대면 라디오 전도 프로젝트 추진

극동방송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 전도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광주에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라디오 가을부흥회'를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800여 명과 비대면으로 소통했다. 포항에서는 11월 7일, 유튜브 라이브채널과 화상회의 앱 ZOOM(줌)에 접속한 420명의 청취자와 함께했다. 제주에서도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 전화 연결 등의 방식으로 청취자와 소통하며 비대면 전도대회를 실시했다.

BBS

개국 30주년과 만공회 5주년 기념 온택트 콘서트 개최



BBS 개국 30주년과 만공회 5주년을 맞아 김명석, 오승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열린 온택트 콘서트 <소중한 인연, 우리는 도반>이 11월 25일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으로 동시 생중계되었다. 인기 진행자인 마가스님, 성진스님, 주병선, 김홍국, 전원주, 오정해 등이 3시간 동안 시청자와 소통하며, BBS의 발전과 만공회 활성화에 애써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디어의 등장과 언어 통일

방송 100년의 의미, 발음법 등 어문규범의 필요성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문학 박사

그동안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에 이어, 방송 100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의 발달이 어문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본다.

지난 11월 2일로 방송이 100년을 맞이했다. 인류 문화에 대변혁을 일으킨 방송의 역사는 미국의 KDKA와 함께 시작됐다.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웨스팅하우스 빌딩 옥상 텐트에서 100W 출력으로 시작했다. 당시 첫 방송은 공화당의 하딩(Warren Harding, 1865~1923)과 민주당 콕스(James Cox, 1870~1957)가 대결한 제29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이었다. 개표 결과 워런 하딩의 당선 소식이 신문이 배달되기 전에 전해지면서 미국인들은 방송의 위력에 환호했다.

1920년 미국 KDKA 이후 1922년 영국 BBC가 탄생했으며, 일본 JOAK는 1925년에 방송을 개시했다. 한국의 첫 방송은 1927년 2월 16일, 사단법인 경성방송, 호출부호 JODK, 주파수 690kHz에 출력 1kW로 시작했다.

1920년대 방송의 발달로 발음법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무선통신과 방송이 활성화된 이 무렵 영국의 대니얼 존스(Daniel Jones, 1881~1967)는 1917년 영어 발음사전(An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을 편찬하고, BBC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1912년 4월 15일 1,500여 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한 타이태닉호의 소식은 무선통신이 큰 몫을 했다. 당시 아메리칸 마르코니 무선전신회사에 근무하던 데이비드 사노프(David Sarnoff, 1891~1971)는 침몰 소식을 72시간 동안 무선으로 전 세계에 알렸다.

- 1920년 11월 2일 미국 KDKA 방송 시작
- 1922년 영국 BBC 1925년 일본 JOAK
-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 JODK 개국

방송으로 발음법에 관한 인식 높아지고 미디어 발달로 어문규범의 정비 뒤따라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언어 순화 힘써야

이 무렵 우리나라는 1920년 조선·동아 두 신문이 나오고, 1927년 방송을 개시했으며,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내놓았다.

미디어의 발달은 지역 언어의 통일을 위한 어문규범의 정비를 필요로 했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는 성서와 라틴어 문법, 뉴스 등을 발행하면서 라틴어 문법의 발전에 기여했다.

금속활자 인쇄는 우리나라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있다.

1377년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1234년 출판한 활자 인쇄본인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구텐베르크보다 10여 년 앞선 1446년 세종 30년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144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韻書로 일종의 발음법인 동국정운東國正韻이 발간됐다.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동국정운은 지역과 계층간의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기 위한 책이었다.

동국정운은 본문의 큰 글자는 목활자로 찍고, 작은 글자와 서문은 갑인자甲寅字로 인쇄했다. 갑인자는 1434년 갑인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주조한 금속활자이다. 동국정운이 1448년에 인쇄되고, 라틴어 문법은 그보다 뒤인 1455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종사자들은 미디어가 어문규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언어의 순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알림 |

고맙습니다



임화숙(전 KBS) 『인생자산』 130권
성연미(전 KBS) 『인생자산』 30권

연회비 납부자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석영, 정연호, 최영미, 양진수

수고하셨습니다

- 신동진 12월 31일 MBC 명예퇴직
- 공나현 12월 31일 울산 극동방송 퇴사
- 이은혜 11월 30일 대구 극동방송 퇴사

축하합니다

- 김지현(CPBC) 12월 26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회사원과 혼인
- 윤동진(FEBC) 11월 26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 원창호(전 KBS) 12월 11일 부인상
- 이재용(전 MBC) 12월 3일 부친상
- 이영호(전 TBC) 11월 21일 본인상
- 유덕훈(전 KBS) 11월 중순 본인상
- 이창진(KBS) 11월 17일 부친상
- 최만린(전 KBS) 11월 17일 본인상
- 박민정(전 MBC) 11월 10일 시모상
- 길중휘(전 KBS) 11월 8일 본인상



제40호 교정을 마치고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욱 이현우 유지현 김규홍 채영신 황인우

근하신년謹賀新年

올 한 해 한국아나운서클럽에서 행사는 전혀 치르지 못했지만 회보 기사는 늘 넘쳐났습니다. 다재다능한 아나운서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창의와 열정으로 활약하고 봉사하신 덕분입니다. 아나운서클럽회보는 회원 여러분이 내주시는 연회비와 후원금으로 발행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편집위원 김규홍 김창욱 유지현 윤지영 이현우 채영신 황인우 배상拜上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건강하고 복된 새해 맞으소서